

월 양 계

7월호

-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 이번 장마는 이달 말까지 한달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마로 인해 불볕더위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기간 동안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하였다. 지난해 강원도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상기하고 사전에 농장주변의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차단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다.
- ◎ 7월은 닭고기의 최고 소비철인 북(초복 15일, 중복 25일, 말복 8월 14일)시즌이다. 하지만 이번 북경기는 예전과 같은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금년 생산량과 냉동·비축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장마로 인해 소비가 주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 이후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생산량 조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계란 비수기 철을 맞이하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5월 환우계군들이 가세하면서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학교의 방학으로 급식이 줄어들면서 계란유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항생제, 유통문제 등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위생적인 계란생산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불황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철저히 세워가야 할 것이다.
- ◎ 지난 3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근 무항생제 인증 농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육 전 기간에 걸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항생제 사육조건을 갖추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된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 농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이 오는 2012년 6월 말까지 5년간 연장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월1일부터 세금감면 혜택이 75%로 축소된 뒤 내년 부터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따라 농어민들은 연간 2조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